**세종대학교 16011069 장지혁**

**1.1 과제 주제**보안의 3대 요소가 깨진 사례를 실생활에서 각각 찾아보세요.

**기밀성**

2018년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대표 양진호 회장이 본인 회사의 직원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했다. 직원들에게 도청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상시로 이를 확인했다.

이는 기밀성이 깨진 사례이다.

**가용성**

은행마다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시간대가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은 00:30 ~ 24:00 까지 이체가 가능한데 00:01 ~ 00:29 까지는 가용성이 깨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무결성**

사람들이 연예인의 SNS계정을 해킹해 조작했던 경우가 많다. 21년 4월 경 가수 박봄의 SNS이 해킹되어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는 무결성이 깨진 사례이다.

**1.2 과제 주제**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랜섬웨어란 Ransome(몸값) 과 Ware(제품)의 합성어로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후,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21년 5월경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범인들은 주요 파일에 대한 몸값으로 5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내었다.

**1.3 과제 주제**  
해커 이름의 유래 및 해커와 크래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해커라는 용어는 195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모형 철도 동아리인 TMRC(Tech Model Railroad Club)에서 유래했다. TMRC에서 만든‘hack'과 그 외에 다른 은어들이 컴퓨터 기술자들 사이에서 쓰이면서, 해커는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갖춘 기술자라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본래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갖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크래커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할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뜻한다.